전법 일기

평택 미군 배우자들에게 한국불교 '선명상' 전하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수많은 미군과 그 가족들이 머물며, 이국 땅에서 낯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은 넓고 평탄한 지형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공간이다.

지난해 여름,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서포터로 스님들과 함께 미국 사찰 순례에 동행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UN 묘지를 참배하며,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과 UN 참전국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 섰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울림을 느꼈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이에 국제포교사 도반과 함께 '미군 배우자 명상 클럽'을 조직했고, 매달 한 차례 선(禪)명상을 지도하며 이국에서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되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경험하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명상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참여자들과 함께 연등(Lotus Lantern) 만들기를 하며 불교의 상징성과 한국 전통 공예를 소개했고, 차(茶) 명상을 통해 한국의 다도(茶道) 문화를 경험하도록 했다.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 한 잔속에서 명상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명상 클럽이 7개월을 맞이한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하는 이들도 생겨났고, 필자는 차근차근 그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작은 씨앗을 심고 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나,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평택의 미군 배우자들이 명상을 통해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이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봉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씨앗이 자라 울창한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듯, 필자의 작은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선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⑭ 경허 선사의 오도송

부처와 중생은 서로 다르지 않다

깨닫고 보니 세상이 내 집일세

홀연히 콧구멍이 없는 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忽聞人語無鼻孔)
문득 깨닫고 보니 온 세상이 내 집일세
(頓覺三千是我家)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六月燕巖山下路)
일을 끝낸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野人無事太平歌)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6~1912) 선사는 조선 후기 불교를 중흥시킨 불후의 선지식이다. 당시는 일본과 서구열강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어 나라가 망해가고, 불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기진맥진하는 말법(末法) 시대였다.

이때 경허 선사는 혜성처럼 나타나 정혜결사(1899년)를 통해 조선불교를 새롭게 이끌었다.

불보살이 보우하여 1895년 조선 숭유억불정책의 상징인 '승려 도성 출입금지 해제령'이 발표돼 서울 한양에서 포교 전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문하에서 기라성 같은 사자새끼들이 쏟아져 나와 오늘날 한국 불교의 핵심인 조계선종의 기틀을 세웠다.

1930년 선학원에서 개최된 조선불교수좌대회에서 그의 상족제자인 혜월, 만공, 한암 스님이 공동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경허 행장'을 쓴 한암 종정은 1948년 조선 조계종 제2대 교정(4번 종정에 추대)에 추대되어 현 조계종단의 초석을 세웠다.

경허 스님은 잠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턱 밑에 죽창을 받치는 살신정진(殺身精進)을 했다. "게으른 중은 죽으면 시주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소로 태어나는데 코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의심이 확 풀리면서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

1구 '콧구멍이 없는 소(無鼻孔)'는 선가의 언어로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是甚麼) 그 뜻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의심하는 수행이 화두 공부이다.

1880년 6월 35세에 잃어버린 소(불성)를 찾던 경허는 고삐를 뚫을 콧구멍이 없는 깨달음을 얻은 성우(惺牛)가 되었다. 그리고 연암산 천장암에서 이 오도송을 토해내는 개당설법을 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웅장한 선언이다. 경허 선사는 한국선시사에서 최초로 심우송(尋牛頌) 20수를 오언절구로 읊은 시승(詩僧)이다. 한용운이 '심우장'으로 계승하였다.

경허 선사는 23세에 동학사 강원에서 만화 강백의 교편을 물려받은 대강사로 교학과 선, 양 검을 쥔 최고 선지식이 되었다. 〈경허집〉에는 깨달음의 세계를 읊은 선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한시 259수와 한글 가사 3수가 있다.

그의 한시 칠언절구 '천장암에 붙여서(題天藏庵)'에서 "속세와 청산 어디가 더 좋은가 봄빛 내리는 성터 어디엔들 꽃이 피지 않으랴"고 하였는데, 오도송 2구에서도 "문득 깨닫고 보니 온 세상이 내 집일세"라고 하였다.

그의 선사상은 무애 자유와 중생과 함께 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 그리고 승가와 세속이 하나인 승속(僧俗) 일여 사상이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로 서로 다르지 않다.

경허 선사는 생사를 초월했고, 세상사의 시비와 분별을 마음에서 놓아 버렸다. 할 일을 다 마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절학(絶學), 일 없는 사람(無事人)이 되었다. 중국 당송시대 역대 조사와 벗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격식을 뛰어 넘은 기이한 일화를 남긴 한국 선종사의 전설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전법·포교는 근대기 불교처럼

흔히 한국의 근대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의 엄혹했던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맞섰던 시대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화와 전통의 사이 근대는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이었다.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구논문들을 보면 1920~40년대 불교는 신문물과 계몽운동을 통한 전법·포교에 진심이었다. 지난 2018~2019년 송광사 박물관 소장유물 전수 조사를 통해서는 '팔상극' '목련극' 두 편의 연희대본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1930~1940년대 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연극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민순의)

이 시기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중심의 불교청년운동이다. 계몽·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이들 운동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전국에서 펼쳐진 불교순회강연단이다.

강연단은 지역 나눠 순회하며 불교 사상 및 교리, 당대 사상 등에 대한 강의를 펼쳤고 매회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1920~30년대 집중됐던 순회강연단의 활동으로 10곳의 지역에서 불교청년회가 결성되기도 했다.(김경집)

이뿐인가. 당시 불교계는 최근 유행하는 스포츠 포교도 시행했다. 1920년 6월 창립된 조선불교청년회는 대구 지역 소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년야구단을 결성했고, 이듬해 11월 열린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창립 당시 조선불교청년회에는 체육부장을 별도로 둘 정도로 체육활동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불교학계에서 주목받는 백석기 조선불교청년회장의 지원과 관심도 큰 역할을 했다.(이성수)

일련의 연구들에서 우리는 전법·포교가 잘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극, 스포츠 등 당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른 가르침을 열과 성을 다해 펼치면, 그 법은 널리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심은 사람을 움직인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